10.18219/ddmh..113.202103.399

고려의 경주 6부 마을들의 위치와 신라의 6부*

鄭演植**

Ⅰ. 서론
Ⅱ. 동촌 乃兒, 下西知, 上西知
Ⅲ. 동촌 波潛, 東山
Ⅳ. 서촌 朴谷村
Ⅴ. 동남촌 柴巴
Ⅵ. 남촌 仇良伐, 廻德, 麻等烏
Ⅶ. 동북촌 葛谷, 仍仇彌村, 勿伊村
Ⅷ. 맺음말

• 국문초록

오래 전부터 신라 6부와 6촌의 위치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중에는 고려의 경주 6부와 그에 소속된 15촌을 통해 간접적으로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려 6부에는 위치가 확실한 촌이 대개 하나 이상 있어서 部의 위치도 대강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흥부는 위치를 알 수 있는 촌이 하나도 없어 막연히 경주 중심부로 추정해 왔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전의 지형도와 지명 조사를 참고하고, 지명 표기에 사용된 한자의 음운을 분석하여 15촌 가운데 13촌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모량부의 후신인 장복부 외에는 고려의 부는 그 전신인 신라의 부와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梁部의 후신이라는 중흥부의 촌들은 경주 중심부가 아니라 동해안 쪽의 감포읍과 양북면에 있었다. 따라서 고려 경주 6부의 위치로 신라 초기 6부를 찾아낼 수는 없다.

주제어 : 신라 6촌, 신라 6부, 고려 경주 6부, 고대국어, 알타이어

---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102)
**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Ⅰ. 서론

일연은『삼국유사』에서 신라 초기의 6촌과 6부를 소개하면서 그곳이 고려 초기 태조 때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경주 6부의 어느 부에 속했고 그곳에 어떤 촌들이 있었는지 언급했다. <표 1>은 고려 경주 6부의 15개 촌과 연관된 신라의 6부에 관해『삼국유사』와『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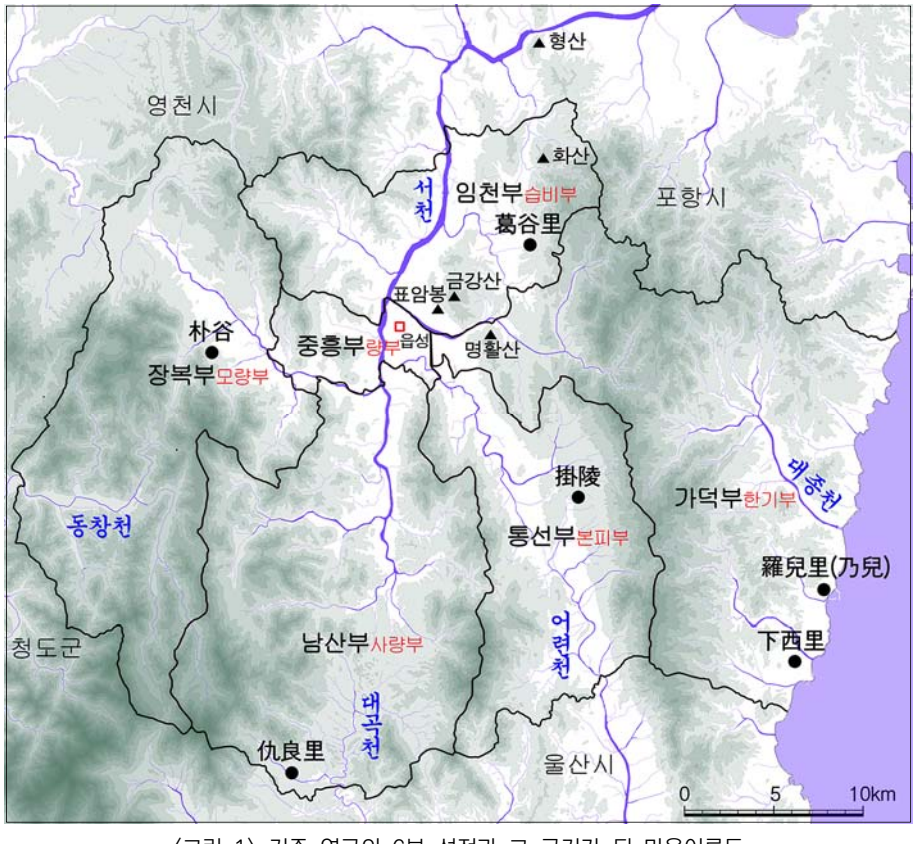
〈표 1〉 신라의 6부 6촌과 고려의 6부 15촌

신라 초				고려 초	
건국초		32년	촌장 강림산	940년	
6촌	6부	6부		6부	촌
閼川 楊山村	楊山部	梁部 及梁部	瓢嵓峰	中興部	동촌 波潛 東山 彼上
金山 加利村	加利部	漢祇部 漢岐部	明活山	加德部	동촌 上西知 下西知 乃兒
嵩山 珍支村	于珍部	本彼部	花山	通仙部	동남촌 柴巴
突山 高墟村	高墟部	沙梁部	兄山	南山部	남촌 仇良伐 麻等烏 道北 廻德
茂山 大樹村	大樹部	漸梁部 牟梁部	伊山 (皆比山)	長福部	서촌 朴谷村
明活山 高耶村	明活部	習比部	金剛山	臨川部	동북촌 勿伊村 仍仇彌村 闕谷(葛谷)

신라 6촌과 6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관련 기록 자료가 소략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치 추정의 근거로 고려 경주 6부 소속 15촌이나 촌장이 강림한 산을 근거자료로 활용한 시도가 종종 있었다. 고려 경주의 6부를 근거로 오래 전의 신라 6부를 찾은 것이다.

『삼국유사』에 열거된 고려 15촌 가운데 가덕부의 下西知, 乃兒나 남산부의 仇良伐, 장복부의 朴谷村, 임천부의 闕谷(葛谷)은 조선시대나 지금까지도 지명이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가덕부의 上西知, 남산부의

廻德, 임천부의 勿伊村, 통선부의 柴巴는 정확성은 보장할 수 없지만, 부족하고 불분명한 근거를 통해서나마 어렴풋이 짐작하기도 했다. 특히 통선부의 柴巴는, 통선부의 전신인 본피부의 珍支村을 賓子라고도 했는데 빈자가 掛陵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동경잡기』의 기록을 통해 개략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남산부는 仇良伐로, 임천부는 葛谷으로, 가덕부는 下西知와 乃兒로, 장복부는 朴谷村으로, 통선부는 괘릉으로 그 권역을 추정하였다(<그림 1>).



〈그림 1〉 기존 연구의 6부 설정과 그 근거가 된 마을이름들

* 연구자들이 설정한 영역은 제시된 그림과는 각각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공통부분을 모아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했을 뿐이다. ▲은 촌장들이 내려온 산이다.
* 경주의 영역은 『경상도지리지』(1425)를 토대로 했다. 북쪽으로는 과거 안강현이었던 강동면, 강서면을 제외하되 강동면의 왕신리 남부를 경주에 포함했고, 서쪽으로는 청도군 지촌 동쪽이,

남쪽으로는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범서면 척과리의 반자동이 포함되었다.

* 각 부의 경계는 대체로 『호구총수』(1789)의 면을 활용하여 그렸다(량부는 부내면, 습비부는 현곡면과 천북면, 한기부는 내동면 북부와 동해면, 본피부는 내동면 남부와 외동면, 사량부는 내남면과 외남면, 모량부는 서면과 산내면).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온맵지형도, <영천 · 경주 · 불국사 · 감포 · 동곡 · 언양 · 울산>(2013). 등고선간격 100m

그러나 그러한 간접적인 접근법은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고려 15촌 중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촌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산부의 道北, 임천부의 仍仇彌村, 중흥부의 波潛, 東山, 彼上의 위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특히 중흥부에 속한 세 마을은 단 하나도 위치를 찾지 못하여 부의 위치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중흥부가 신라 정치세력의 핵심이었던 梁部의 후신이었고, 이름에 '中' 자가 들어가며, 촌장이 경주 중심부에 가까운 표암봉으로 내려온 것을 근거로 삼아 대체로 경주 중심구역에 해당되는 현재의 경주시내에 설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의문이 있다. 첫째로 東村 중흥부가 동쪽이 아니라 중앙에 있다는 것이 이상했고, 둘째로 명활산 습비부가 명활산 근처에 있지 않고 금산(금강산) 쪽에 있으며, 셋째로 금산 한기부가 금산 근처가 아니라 명활산 쪽에 있는 것도 기이했다.

때로는 촌장이 강림한 산도 부의 위치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습비부는 시조 촌장이 금강산으로 내려왔고, 그 후신인 임천부 소속 갈곡이 천북면에 있는 것을 근거로 습비부를 금강산 쪽에 배정하고, 한기부는 시조 촌장이 명활산으로 내려왔고, 그 후신인 가덕부 소속 乃兒와 下西知가 양남면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기부를 명활산에서 동해안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았다.[1)]

그러나 촌장이 강림한 산의 위치를 토대로 6촌, 6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불안해 보인다. 각 촌장이 강림한 산과 신라의 6촌, 고려 경주의 6부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촌장의 강림산이 오히려 다른 촌에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당

1) 末松保和, 「新羅六部考」, 『京城帝國大學創立十周年紀念論文集(史學篇)』(京城帝國大學 文學會編), 東京: 大阪屋號書店, 1936(「新羅六部考」,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에 재수록); 전덕재, 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72면; 이기봉, 「신라의 건국 전후 6촌과 그 전통에 대한 지리적 검토」, 『문화역사지리』 15-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9면; 박성현, 「신라 왕경 6부의 경계에 대한 연구」, 『대구사학』 134, 대구사학회, 2019, 23~24면.

촌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다. 예컨대 沙梁部의 시조는 과거 경주의 북쪽 경계선 밖에 있었던 형산으로 내려왔다 하는데 沙梁部의 후신이라는 남산부의 仇良伐은 형산에서 40여km나 떨어진 경주의 남쪽 끝에 있다(<그림 1>).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 15촌의 위치를 다시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촌의 위치를 일제강점기와 최근의 여러 지형도와 함께 고대국어의 한자표기에 관한 음운학을 활용하여 하나하나 찾아서 고려 경주 6부의 기록을 신라 6부의 위치 추정에 적용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Ⅱ. 동촌 乃兒, 下西知, 上西知

『삼국유사』에서 동촌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물론 경주의 동쪽에 있다는 말이고, 그 방향 판정의 기준점은 경주읍성이 될 것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1012년(현종 3)에 경주에 읍성을 쌓았고, 그 후로 개축은 있었지만 위치는 바뀌지 않은 채 조선의 경주읍성으로 이어졌다. 『삼국유사』는 경주읍성을 짓고 나서 약 170년이 지난 1281년에 편찬되었으므로 방위의 기준은 현재 계림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경주읍성으로 정하고 마을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가덕부에 속한 東村의 나아[乃兒]는 『戶口總數』(1789)에는 東海面 羅兒里로, 현재는 양남면 나아리로 남았다.[2] 나아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영역의 확대나 축소는 있었을지라도, 현재의 양남면 나아리를 지칭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고대 지명표기에서 '乃'는 대개 '나'를 표기하는 글자였으므로,[3] 나아리라는 후대의 명칭이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다만 주변 지형으로 보건대, 지금의 나아리에 좁게 국한되기보다는 대종천 하류 지역을 포괄하는 나산리의 남동쪽 구역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下西知도 현재의 양남면 하서리를 가리킨다는 데에 모두 동의한다. 하서지는 1970년대 지명조사 결과를 수록한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아릿섯골'로 불렀다고 한

2) 『戶口總數』 慶尙道 慶州 東海面;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Ⅳ)』, 1979b, 250면.

3) 김무림,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55~56면.

다.[4]

한편 上西知는 정조 때의 『호구총수』에서 동해면의 나아리, 하서리와 함께 상서리라는 이름으로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명칭에는 보이지 않다가, 1970년대의 지명 조사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 지명으로 여전히 존재했다. 즉 『한국지명총람』에는 양남면 상계리에 있던 '上西知(상섯골 · 웃섯골)'라는 지명을 소개하면서 상계리, 신대리, 수렴리, 신서리, 서동리를 통틀어 이른다고 하였다.[5] 그러나 상서지가 이렇게 넓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웃섯골은 물론 아릿섯골에 대비되는 이름이며 한자로 표기하면 上西洞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서동이라는 지명이 대한제국 시기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1907년에 일본 농상무성 鑛産局에서 발행한 『韓國全羅道慶尙道地質及鑛産圖』의 지형도에서 下西(里)에 인접한 서쪽에 있는 上西洞을 상서지로 추정했다. 지도에는 '下西'의 서남서쪽에 '上西洞'이 있고 상서동의 남쪽, 하서의 서남쪽으로 '石洞'이 있으며 그 남쪽에 경주와 울산의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었다.[6]

이상을 종합해 판단하건대 『한국지명총람』에서 양남면 15리 가운데 5리를 아우른 구역을 통틀어 상서지, 웃섯골이라 불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큰 마을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명을 붙이는 관례에 따르면 상서동과 하서동은 서로 경계선을 맞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하서리 서쪽에 접해 있는 신서리와 남쪽으로 접해 있는 수렴리가 후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상서지, 상서동, 웃섯골은 바닷가 저지대의 하서지, 하서동, 아릿섯골보다 상대적으로 내륙쪽 높은 지대를 가리킬 것이므로 남쪽의 수렴리보다 서쪽의 신서리가 더 유력하다. 그리고 『한국전라도경상도지질급광산도』에서도 상서동으로 표시된 곳은 지금의 신서리에 해당된다(<그림 2>). 그러므로 경계까지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금의 양남면 신서리 구역이 상서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256면.

5) 위의 책, 251면.

6) 末松保和, 앞의 1954 책, 260면. 40만분의 1 지형도 〈韓國地質及鑛産圖-全羅道及慶尙道〉는 国立国會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https://dl.ndl.go.jp/info:ndljp/pid/902246)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상서지, 하서지, 나아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 <朝陽>(1918). 등고선간격 100m. 평지와 산지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40m 등고선을 추가했다.

Ⅲ. 동촌 波潛, 東山

1. 波潛

가덕부에 속한 동촌의 상서지, 하서지, 나아는 동해안 쪽에 있었다. 그런데 중흥부의 波潛(파잠), 東山(동산), 彼上(피상)도 동촌에 속한다 했으므로 중흥부의 마을들도 우선적으로 동해안쪽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서 상서지, 하서지, 나아가 있는 양남면 쪽을 제외하면 중흥부는 양북면 또는 감포읍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서 彼上은 찾기 어렵지만 波潛과 東山은 감포읍과 양북면에서 찾을 수

있다.

波潛의 波는 ‘파’로 읽지만 ‘바’도 가능하다. 한국한자음에 ‘바’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으므로 ‘바’도 波, 婆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潛은 현재 ‘잠’으로 읽고, 조선시대에는 ‘즘’으로 읽었다.[7)]

한국한자음은 대개 慧琳의 『一切經音義』가 완성된 800년 전후, 또는 그보다 약간 뒤에 해당하는 통일신라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8)] 그 시기의 중국어는 중고음이었다. 중고음의 권위자 풀리블랭크(E. G. Pulleyblank)는 중고음 가운데 남북조, 수, 초당을 거쳐 8세기 후반 성당(713~765)까지의 중고음을 전기중고음(EMC)으로 부르고, 이를 대표하는 음운서로 隋代에 완성된 『切韻』을 들었다. 그리고 중당(766~835), 만당을 거쳐 오대, 북송, 남송까지의 중고음은 후기중고음(LMC)으로 부르며 후기중고음의 대표적인 음운서는 오대에 완성된 『韻鏡』이다.[9)] 그러므로 한국한자음이 형성된 때나 군현의 대대적 정비가 있었던 고려 태조 때는 모두 후기중고음 시기에 해당된다. <표 2>는 음운학자들이 중고음 또는 후기중고음을 재구한 결과인데[10)] 이를 보면 이 시기 潛의 중국음은 대체로 dziɛm 또는 그와 가까운 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우리말의 음운으로 재현해보면 중국어의 從母 dz-, 精母 ts-, 章母 tɕ-,

〈표 2〉 潛의 중고음

昨鹽切 從母 鹽(鹽A)韻 咸攝 3等 開口 平聲	
Karlgren	dz^{h}i̯äm
王力	dzi̯æm
李榮	dziäm
昭榮芬	dziæm
Pulleyblank	dziam
鄭張尙芳	dziᴇm
潘悟雲	dziɛm

7) 『石峰千字文』 4a, 『新增類合』 하3 “潛 즘길 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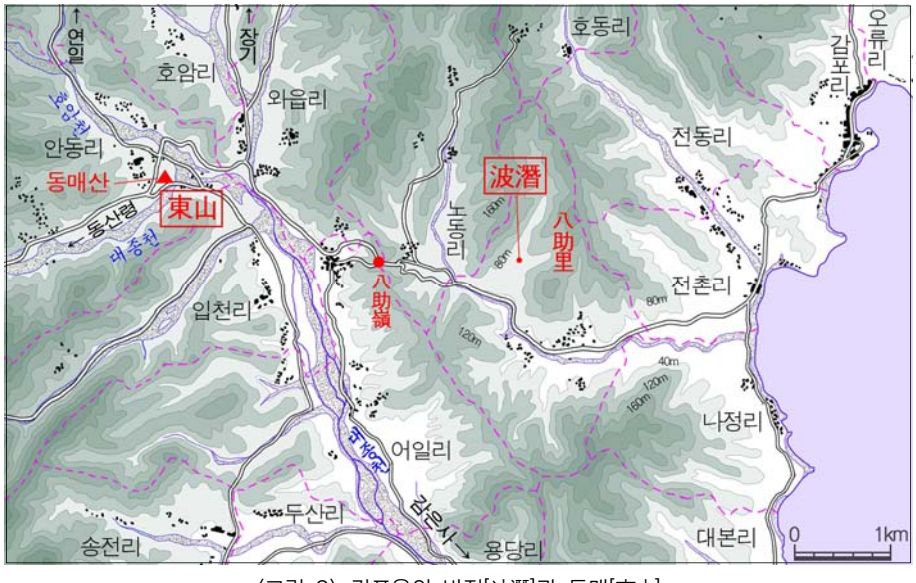
8) 河野六郎,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 2』, 東京: 平凡社, 1979, 509면; 伊藤智ゆき, 『朝鮮漢字音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7, 266~267면; 魏國峰,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태학사, 2017, 61~64면.

9) E. G. Pulleyblank,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pp.3~4.

10) B. Karlgren,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7, GSR No. 660n; 王力, 『漢語語音史(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245면; 李榮, 『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73, 128・150면; 邵榮芬, 『切韻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167면; E. G. Pulleyblank,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1991, p.250; 鄭張尙芳, 『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3, 244・251면;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60・87면.

照母 tʃ는 우리말에서 모두 'ㅈ'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波潛은 '바젬, 바졈' 또는 그와 비슷한 음을 표현한 한자이다.[11]

앞에서 波潛, 東山, 彼上이 동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그곳이 양북면이나 감포읍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감포읍에 속한 八助里의 원래 이름이 '바짐'이었다. 그것은 波潛의 음과 매우 가깝다.[12]



〈그림 3〉 감포읍의 바짐[波潛]과 동매[東山]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 <朝陽>(1927). 등고선간격 40m

『동국여지승람』에서는 경주부 동쪽 53리에 八助嶺과 八助浦가 있고, 54리에 바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동경잡기』에서는 팔조령이 경주부 동쪽 65리, 팔조포와 바다가 70리에 있다고 했다.[13] 그것은 팔조령이 경주에서 동쪽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11) 潛은 從母 齒音에 鹽A韻이 결합된 음이므로 漸처럼 '졈'이 되는 것이 한국한자음의 규칙에 맞는데(伊藤智ゆき, 앞의 2007 책, 172~173면), 예외적으로 '즘'이 되었다.

12)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195면.

13) 『東國輿地勝覽』 권21, 慶尙道 慶州府 山川; 『東京雜記』 권1, 山川. 조선시대의 1里는 360步로 周尺으로 2,160尺이고, 周尺 1척을 20.7cm로 하면 대략 450m가 된다(『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 14일 정축; 『經國大典』 권6, 工典 橋路).

있으며 동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개임을 알려준다.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을 찾는다면 감포읍 노동리와 어일리 경계에 있는, 표고 약 80m의 고개 외에 달리 지목할 곳이 없다(<그림 3>). 그 고개는 경주시내에서 토함산 북쪽의 楸嶺이나 남쪽의 東山嶺을 넘어 감포, 나정리로 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개이다. 그리고 그 고개 동쪽으로 팔조리가 있고 팔조리의 등고선은 북동쪽으로 깊게 파여 있다. 그곳에 있던 마을이 바짐[波潛]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자료들이 있다.

〈그림 4〉 선산(구미)의 바지미[巴岑]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 <仁同>(1918) · <孝令>(1924). 등고선간격 40m

波潛은 巴岑으로도 표기되었다. 예전에 선산군에 속했던,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의 선교동은 '바자미, 바지미'라고 부르는 곳이다(<그림 4>).[14] 그런데 그 마을 이름에 관해서는 그곳에 200년 전에 호가 巴岑인 선비가 살아서 '파잠'이라 부르다가 그것이 '바자미, 바지미'로 바뀌었다는 특이한 설명이 있다.[15] 波潛이나 巴岑은 모두 '바잠, 바짐, 바자미, 바지미'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경주의 팔조리를 '바짐'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波潛, 巴岑과 八助는 같은 뜻을 지닌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자료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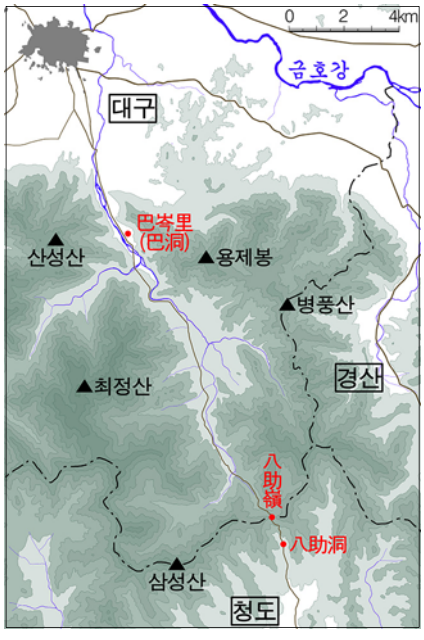
『선조실록』에는 1593년(선조 26) 봄에 경주판관 박의장이 巴岑에서 왜군을 크게 격파하는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16] 김응조의 『鶴沙集』에 수록된 박의장의 행장과 김하구의 『楸庵集』에 기록된 김도장의 신도비명에는 전투가 벌어졌던

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Ⅱ)』, 1978b, 333면.

15) 국토지리정보원 통합지도검색 지명검색 "바지미"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상장리 바지미 · 바자미(巴岑) · 선교동(仙橋洞).

16) 『선조실록』 권37,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곳을 더 구체적으로 巴岑峴이라고 기록했다.[17] 그런데 파잠현이 『학사집』에서는 대구 파잠현으로, 『추암집』에서는 청도 파잠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파잠현이 대구와 청도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인데, 대구와 청도의 경계에 있는 고개는 현재 표고 373m의 八助嶺이다(<그림 5>).[18] 그리고 조정(1555~1636)이 청도에 머물 때에 지은 시에는 巴岑峴을 巴岑嶺이라 했고,[19] 『경상도읍지』에서는 八鳥嶺이라 했다.[20] 결국 巴岑峴, 巴岑嶺, 八助嶺, 八鳥嶺은 모두 같은 고개이다.



〈그림 5〉 대구-청도의 바짐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 <大邱>·<慶山>(1934). 등고선간격 100m

그리고 巴岑峴, 八助嶺의 남쪽에는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가 있고,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는 대구 수성구 巴洞이 있는데 그곳의 예전 이름이 巴岑里였다.[21]

결국 '바짐/바지미'를 巴岑, 波潛으로도 쓰고, 八助, 八鳥로도 썼던 것이다. 그리고 청도군 이서면의 팔조리에는 '파조굴'이라는 별명이 있었다.[22] 그것은 '八助, 파조, 바짐, 바잠'이 굴과 관련된 말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그림 6>).

---

17) 金應祖, 『鶴沙集』 권9, 神道碑 贈戶曹判書行慶尙道左兵使朴公神道碑銘 并序; 金夏九, 『楸菴集』 권6, 行狀 祖考護軍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府君行狀. 巴岑峴 전투에는 金道章의 증조, 河陽縣監 金鸞瑞가 참여하여 전공을 세웠다.

18)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와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의 경계에 있는 팔조령에는 현재는 터널이 뚫려 있다.

19) 趙靖, 『黙澗集』 권1, 詩 遊雲門馬上口占 5首 "暮上巴岑嶺 遙看曠野長……"

20) 『慶尙道邑誌』 山川. "八鳥嶺 在府南四十里 自淸道雲門山來"

21) 『戶口總數』 慶尙道 大邱 上守西面 巴岑里;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50,000지형도 〈慶山〉(1934); 한글학회, 앞의 1978b 책, 19면.

22)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413면.

〈그림 6〉 청도 팔조와 팔조령
■ 국립지리원, 1:25,000지형도
<淸道>·<慶山>(1976). 등고선간격 50m

'바짐, 파조'의 유래는 원시알타이어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끼다'와 연관된 말이다. 원시알타이어의 *pĭsa/*p'ĭsa는 사이에 끼워 넣다, 끼워 누르다는 뜻의 말이다. 원시퉁구스어의 *pisa도 쐐기를 끼워넣다는 뜻이며, 하바롭스크의 울치어 pịsa, 아무르강[黑龍江] 유역의 나나이어 pịsa가 모두 이에서 유래되었다. 그런데 방언, 변이음 등으로 인한 언어적인 특징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리적인 경계선 아이소글로스(isogloss)를 그으면 알타이어에서도 동쪽 지역의 언어에서는 *pisa가 *păsi의 형태로 나타난다.[23]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m이 덧붙여졌다. hasamu(挟む, 挿む)는 사이에 끼우다, 쐐기를 넣다는 뜻이고 hasamu(鋏む)는 물건을 가위의 양날 사이에 끼워 넣고 자른다는 뜻이며, hasami(鋏)는 가위를 뜻한다. 고대 일본어의 *p-는 중세 일본어에서 f-가 되었고 현대 일본어에서는 h-로 변했으므로 끼우다, 쐐기 박다, 가위로 자르다의 hasam-은 고대일본어에서는 당연히 *pasam-이었을 것이다.

우리말에서 '끼다'는 중세국어에서는 'ᄢᅵ다[挾]'인데,[24] 그것은 *pisa나 *păsi에 -k가 덧붙여진 형태 *pVsV+k에서 중간의 모음 V가 어중음탈락(syncope)에 의해 사라져서 'ᄡᅵ'(psk-) 형태가 되었고 현재는 'ㄲ'이 된 것이다. 그리고 -k가 덧붙여지지 않고 어중음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채로 남은 *pasV가 바조[八助]가 되었을 것이고,[25] 일본과 같이 -m이 붙은 변형이 '바짐'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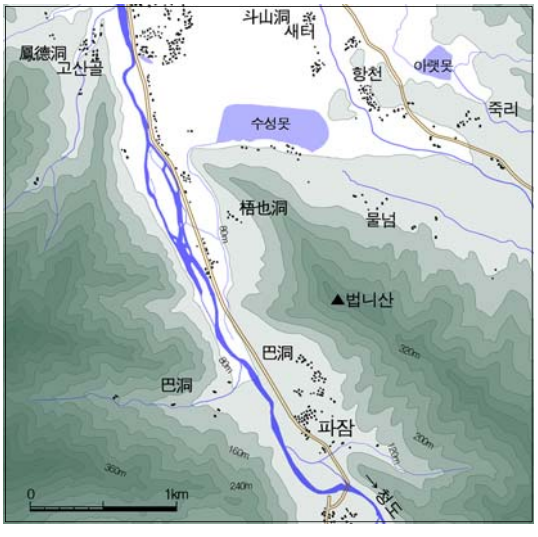
---

23) S. Starostin, A. Dybo, O. Mudrak,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Boston: Brill, 2003, p.1091.

24) 『救急方諺解』(1489) 上88 "몬져 쌔ᄅᆞᆯ 고텨 ᄲᅡ 단기고 술 머겨 취케 ᄒᆞ라[先整骨了夾定飮之令醉]"; 『重刊杜詩諺解』(1632) 4:12 "사ᄅᆞᆯ ᄲᅡ셔 漢ㅅ ᄃᆞ래셔 소ᄂᆞ다[挾矢射漢月]"

25) 不正을 '부정'으로 읽는 것처럼 八助도 '파조, 바조'로 읽을 수 있다. 不, 八의 중고음은 [put], [pat]인데(E. G. Pulleyblank, op. cit., 1991, p.27. p.43). 巴, 波를 쓰지 않고 八을 쓴 것은 뒤따르는 치경음을 의식하여 pat-tso 형태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숩[林]'을 習比[sup-pi]로 쓰는

이제까지 제시된 지형도들을 보면 경주의 팔조리 바짐과 청도의 파조굴은 지형이 산의 능선 사이로 북쪽으로 ∧ 형태로 파고 들어간 형태이고,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의 바지미는 동쪽으로, 대구시 수성군 파동의 파잠(巴岑)은 남동쪽으로 파고 들어간 모양이다. 결국 바짐이란 협곡에 쐐기를 박은 모양으로, 또는 날을 벌린 가위 모양으로 파인 곳을 뜻하는 말이다.



〈그림 7〉 대구 巴岑里(巴洞)
■ 국립건설연구소, 1:25,000지형도
<辰泉洞>·<慶山>(1965). 등고선간격 40m

경주의 바짐, 팔조라는 지명은 좁게 보면 북쪽으로 파고들어간 지형에 붙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넓게 보면 나정리, 전촌리 쪽에서 팔조령 쪽으로 < 형태로 크게 파고들어간 지형에 붙은 말일 수도 있다. 전촌리, 전동리 쪽에 작은 바짐이라는 뜻의 '솔바짐, 소바짐'이라는 지명은 팔조령 방향으로 < 형태로 들어간 지형을 큰 바짐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대구의 파잠리도 좁게는 남동쪽으로 파고들어간 지형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대구 시내 넓은 평지에서 청도 가는 길로 파인 계곡을 바짐으로 본 것일 수도 있다(<그림 7>). 어떻게 보든 벌어진 가위 모양, 쐐기 모양으로 능선 사이로 파고들어간 지형을 바짐이라 부른 것이다.

결국 叭다(끼다)보다 오랜 알타이어의 원형을 간직한 언어가 바짐, 바조이다. 일본보다 더 서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그 어원은 *pasi는 patsi가 되었을 것이고 그 명사형 patsim이 바짐 또는 바지미라는 지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八助는 그것의 변이음 patso(바조)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비집다'란 말도 이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좁다'란 말도 그에서 유추되어 파생하지 않았나 한다.

것과 같은 이치이다.

2. 東山

우리나라에는 ‘동산’이라는 이름의 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자로는 대개 ‘東山’으로 표기하며 간혹 ‘同山’, ‘洞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산은 동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을 동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모두 동산이라 불렀다. 동산이란 큰 산의 산줄기 끝자락에서 떨어져 나가 따로 솟은 작은 산을 부르는 말이다.[26] 천북면의 소리못[所里池, 聲池] 남쪽에 있는 표고 103m의 나지막한 산도 표고 60m쯤인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높이는 4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이라 동산이라 부른다(<그림 12>).

우리말의 ‘동’은 끄트머리의 작은 부분을 말한다. 옷의 끝부분을 ‘끝동’이라고 하고, 소맷부리 따위를 다양한 색깔의 천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색동옷’이라 하며, 기다란 담뱃대의 입을 대고 빠는 끝 부분에 끼우는 놋쇠를 ‘동거리’라 한다. 그리고 끄트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도 ‘동’이라 부른다. ‘동떨어지다’의 ‘동’도 그런 뜻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동산은 떨어져 나간 작은 산이다.

동산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를 얕잡아보아 ‘똥산’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산’은 ‘메, 매’로 교체되기도 하고, ‘메, 매’와 겹치기도 하여, 동산, 똥산, 동매, 똥매, 동매산, 똥메산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낳았다. 이를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대개 東山 또는 獨山으로 표기했다. ‘동’을 ‘東’으로 표기하면 소리 표현에는 충실하지만 뜻 표현은 포기해야 하는데, ‘獨’으로 표기하면 독[tok]의 연구개 폐쇄음 [k]와 동[toŋ]의 연구개 비음 [ŋ]이 서로 비슷하고, ‘獨’이 ‘홀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음과 뜻의 표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 황성동 황성공원에 있는, 꼭대기에 김유신기마상이 있는 작은 산도 ‘동매’라고 부르고 ‘獨山’으로 쓰며(<그림 12>), 지금의 경기도 동두천(東豆川)도 예전에 독두천(獨豆川)으로 표기했다.[27]

그런데 동산은 일연이 중흥부 동촌의 대표적인 마을로 거론한 곳이므로, 구석진 곳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왕래하여 널리 알려진 곳이었을 것이다. 경주 동쪽 팔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곳으로는 양북면 안동리의 동매산이 있는 곳을 들 수 있다(<그림 3>). 호암리에서 흘러내리는 호암천이 대종천으로

---

26) 정연식, 「‘독섬[獨島]’의 뜻과 유래」, 『영토해양연구』 17, 동북아역사재단, 2019, 101~102면.

27)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 Ⅰ)』, 1978a, 200면; 김재식 · 김기문, 『경주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1991, 225면.

합류하는 곳에 있는 동매산은 표고가 약 56m로, 동쪽에 인접한 평지 동매들[坪]의 표고가 50m 남짓이니 높이가 기껏해야 5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다. 그래서 동매산으로 불렀고 그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東山이 되는데,[28] 그 산 이름이 마을 이름으로도 쓰였던 것이다. 그곳은 지도에도 보이듯이 북쪽으로는 호암리를 거쳐 연일로 가거나, 와읍리를 지나 장기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는 동산령 또는 추령을 넘어 경주 읍성으로 향하는 길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따라서 번화한 마을을 형성했을 것이다. 1927년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작성한 5만분의 1 지형도에서도 그곳에는 여러 건물과 집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일연이 동촌의 한 마을로 널리 알려진 東山을 지목했을 것이다.

Ⅳ. 서촌 朴谷村

경주에도 입실[入谷], 노실[蘆谷] 등 여러 곳이 있듯이 경상도 지역에서 골짜기는 '실'이라 하므로 朴谷은 '박실'의 한자 표기로서 현재 경주 건천읍 조전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1789년의 『호구총수』에는 朴谷里로 있었고, 1912년의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朴谷里와 棗田里가 있었으나, 1914년에 박곡리는 조전리에 합쳐졌다.[29]

현재 박실[朴谷]은 단석산의 북쪽 지맥인 표고 458m 장군봉의 북동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그 장군봉은 예전에 蔚介山이라 하였다.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는 蔚介山이 단석산에서 내려왔다 하였고, <동여도>나 <대동여지도>에는 鬱介山으로 표시되어 있다. 鬱이나 蔚은 울창하다, 무성하다는 뜻이므로 蔚介山과 鬱介山은 같은 산이다. 그런데 그 산은 울개산이 아니라 가개산이라 불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함경도 안변에는 고구려의 加支達縣이 있었다. 加支達의 支는 江東方音을 사용했던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에서는 *ki로 읽었으나, 중원음을 사용했던 한반도 북부

28) 국립지리원, 1:5,000지형도 〈불국사088〉(1996).

29)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489면.

〈그림 8〉 가개산[蔚介山 · 茂山]과 朴谷村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온맵지형도, <경주>(2013). 등고선간격 100m

의 고구려에서는 *ke로 읽었다. 그러므로 加支는 우리말로는 가게(*kake) 또는 가개(*kakɛ)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加支達縣은 통일신라에서 菁山峴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達을 山으로, 加支를 菁으로 대체하여 우리말 소리를 표기한 한자 이름을 뜻을 표기한 한자 이름으로 바꾼 것이다. 菁은 鬱, 蔚, 茂와 마찬가지로 모두 무성하다, 울창하다를 뜻하는 한자이다. 그러므로 加支로 표기된 '가개/가게'는 무성하다, 울창하다를 뜻하는 우리말이었다. 그래서 나무가 무성하여 숲이 울창한 언덕 모양의 鬱陵島를 茂山島라고도 하고, 가개섬, 까깨섬이라 불렀던 것이다.[30] 그런데 고대에는 향가에서 밤을 夜音으로, 길을 道尸로 쓰듯이 종종 앞의 글자로 뜻을, 뒤의 글자로 꼬리음을 나타내는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蔚介山, 鬱介山은 숲이 무성한 산, 울창한 산으로 '가개산'으로 읽으며 茂山과 통한다. 신라 6촌의 茂山 大樹村은 가개산[蔚介山] 기슭의 栗田里가 되었고 박곡촌은 바로 그 옆이다(<그림 8>).[31] 이 경우에는 신라 모량부와 그 후신인 고려 장복부의 위치가 일치한다.

Ⅴ. 동남촌 柴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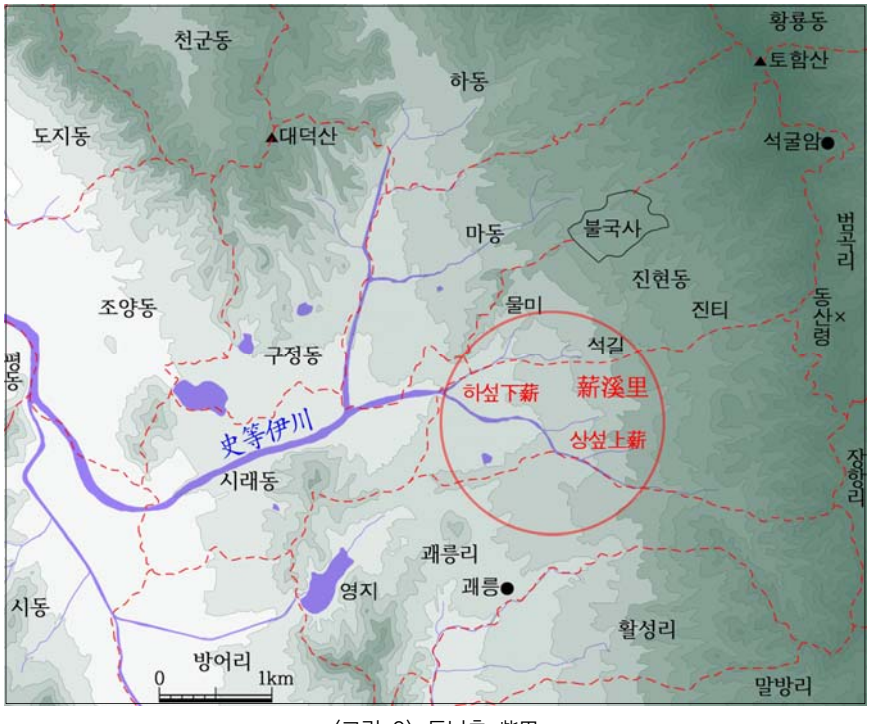
동남촌의 柴巴는 남동촌에 속해 있으므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도로 주변의

30) 정연식, 「가개섬 鬱陵島의 여러 별칭과 于山島의 실체」, 『대동문화연구』 10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316~326면.

31) 大樹村은 대밭, 대숲을 뜻하는 '대수촌'이었으며 그것이 대추밭 栗田里로 변질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 논증은 이 글의 요지와 거리가 있으므로 다른 글에서 詳論하기로 한다.

마을로 짐작된다. 그 방면의 마을 중에서 柴巴라는 이름을 쓸 만한 곳은 외동읍 薪溪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일찍이 末松保和는 柴巴의 앞글자 柴는 訓讀으로 '섶'을, 뒷글자 巴는 音讀으로 꼬리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였다.[32] 그런데 『동경잡기』에서는 柴巴를 각방에서 괘릉 근처로 나타난 賓子村과 함께 거론하였다. 따라서 柴巴도 괘릉 근처로 볼 수 있다.[33] 괘릉 근처의 지명으로 '柴, 섶'과 관련된 곳은 薪溪里이다. 薪溪里는 1914년의



〈그림 9〉 동남촌 柴巴

■ 국토지리정보원, 1:25,000온맵지형도, <불국>(2013). 등고선간격 40m

32) 末松保和, 앞의 1954 책, 259면; 三品彰英도 말송보화의 견해에 따랐다(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 第3分册-新羅始祖赫居世王」『朝鮮研究年報』 9, 和歌山: 朝鮮研究會, 1967(三品彰英, 村上四男 編, 『三國遺事 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426면 재수록)].

33) 『東京雜記』에서 賓子村이 柴巴와 함께 거론되었으나, 『동경잡기』가 『삼국유사』보다 약 400년 뒤의 기록이라서 근거로 삼기에 주저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시에 처음 등장한 명칭이며,[34] 그 전 1912년에는 外東面의 '上薪里, 下薪里'로 나타나고, 1832년의 『慶尙道邑誌』에서도 '上薪, 下薪'으로 보인다.[35] 上薪, 下薪은 현지에서는 '상섶, 하섶'으로 부르던 곳이다(<그림 9>).

섶의 중세국어는 '섭'인데,[36] 고려시대에 '섭'이 外破한 소리는 '서바'와 유사한 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 앞글자는 柴의 뜻을 빌려 쓰고, 뒷글자는 巴의 소리를 빌려 썼을 것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버들을 柳等으로, 길을 道尸로, 밤을 夜音으로, 가개를 蔚介로 표기한 것과 같은 방식의 표기이다. 그런데 버들, 길, 밤, 가개를 柳等, 道尸, 夜音, 蔚介로 표기할 때 앞글자는 뜻은 같지만 음은 전혀 다른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柴巴의 앞글자 柴(시)는 서바의 '서'와 음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마치 일본에서 미술품 전시실을 뜻하는 gallery를 음과 뜻을 모두 충족하는 畫廊(がろう: 가로오)으로 쓴 것과 같다. 섶을 뜻하는 '서바'를 柴巴로 썼다고 한다면 上薪, 下薪, 薪溪里가 이에 해당되며 경주의 동남쪽이라는 조건에도 합치된다.

Ⅵ. 남촌 仇良伐, 廻德, 麻等烏

1. 仇良伐과 廻德

남촌의 지명으로는 仇良伐, 麻等烏, 廻德, 道北이 있는데 道北을 제외한 세 곳은 찾을 수 있다.

고대 지명 표기에서 火와 伐은 '벌'[原]의 음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다. 따라서 仇良伐은 『동국여지승람』에서 경주부 남쪽 46리에 있었다는 仇良火村을 지목한 것이 확실하며[37] 그곳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로 지명도 그대로 남아 있다(<그림 1>).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견해도 일치한다.

---

34) 越智唯七, 앞의 1917 책, 488면.

35) 『慶尙道邑誌』 慶尙道 慶州府邑誌; 朝鮮總督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京城, 1912, 578면.

36) 『訓蒙字會』 用字 "섭爲薪"; 『杜詩諺解(初刊本)』 7:3 "서브로 혼 문을 정히 아니ᄒᆞ야柴門不正".

37) 『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驛院 仇良火村院.

한편 廻德은 충분한 자료가 없어 지명을 확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仇良伐 근처에서 廻德을 찾는다면 錢邑里일 가능성이 높다. 錢邑里의 예전 이름은 廻(回)隱村이다.[38] 廻(回)는 '돌다'를 뜻하고 隱은 고대국어 표기에서 'ㄴ' 음소를 표시하던 글자이다. 그러므로 廻隱은 '돈(돌은)'이 되어, '돈골'이 '錢邑'으로 바뀐 것이다.[39] 廻德과 廻隱이 같은 곳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 麻等烏

『삼국유사』 紀異의 '신라시조혁거세왕'에 보이는 麻等烏는 塔像의 '天龍寺'에서는 馬等烏村으로 기록되었으며, 『동경잡기』와 『선조실록』에서도 그렇다.[40]

김정호의 『大東地志』에는 馬登山이 치술령 서쪽으로 경주부 남쪽 70리에 있다고 하였고,[41]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마등산을 울주군 두동면 泥田里에 있는 산으로 소개했다.[42] 그것은 이전리 중심에 있는 표고 224m의 낮은 산을 말한다(<그림 10>). 그 馬登山이 麻等烏 또는 馬等烏와 관련이 있을까?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경상좌병사 성윤문의 보고에는 11월 3일 밤에 왜군이 馬等烏에 있던 조선군을 기습했고, 오전에는 허고개(虛古介) 근처의 왜군들이 몰려들어와 막아내었다고 『선조실록』에 기록되었다.[43] 그러므로 마등오가 허고개 너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허고개[許峴 · 虛古介]는 울주군 두동면 남쪽 경계의 서쪽 연화산[余那山]과 동쪽 국수봉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당시 연화산, 허고개, 국수봉을 잇는 선으로 경주와 울산의 경계선을 삼았다. 그러므로 허고개 너머의 마등산이 마등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마등오는 치술령 서쪽의 마등산 일대의 지명이다. 마등산은 泥田里에 있고, 이전리 남쪽에는 조선시대에 陰邊里로 부르던 銀片里가 있으며, 이전리 동쪽에는 飛烏頃里라 불렀던 萬和里가

---

38) 『慶尙道續撰地理誌』 慶州道 慶州府 院宇 廻隱村院; 『東國輿地勝覽』 권21, 慶州府 驛院 回隱村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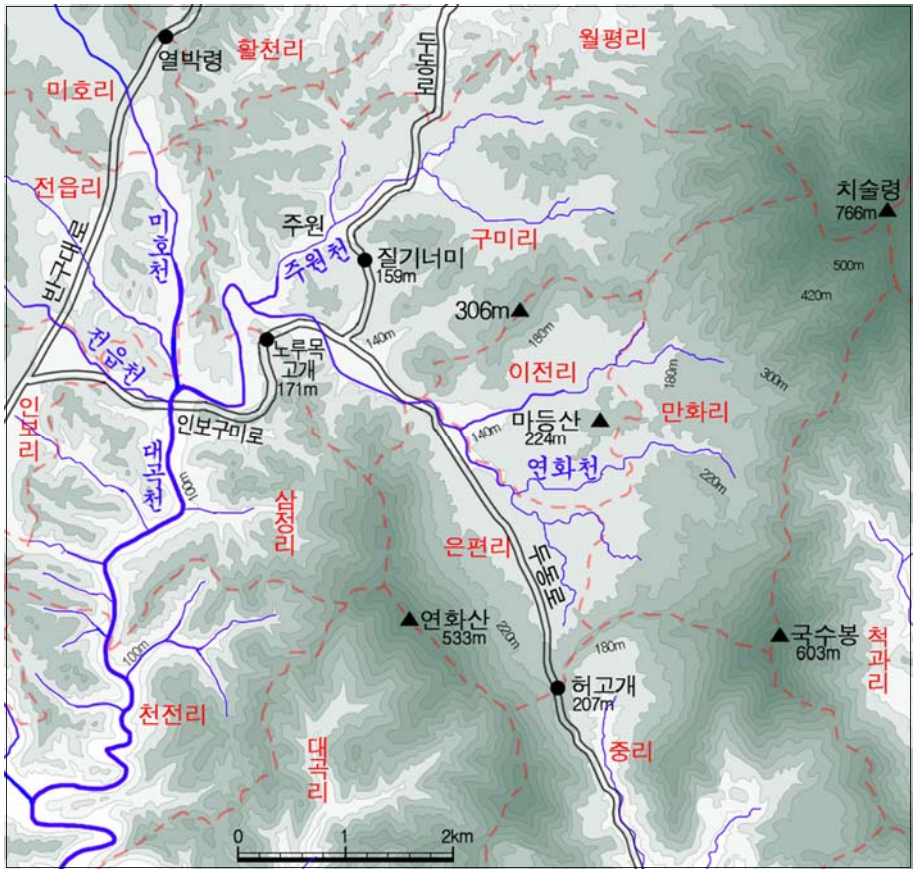
3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9(경남편 Ⅱ)』, 1980, 381면. 三品彰英도 廻德을 廻隱村으로 보았다. 다만 德이 '큰'을 뜻하므로 '隱'과 비슷하다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三品彰英, 앞의 1975 책, 423면).

40) 『삼국유사』 권3, 塔像 天龍寺; 『東京雜記』 권2, 各同.

41) 『大東地志』 권7, 慶州 山水.

42) 한글학회, 앞의 1980 책, 374면.

43) 『선조실록』 권94, 선조 30년 11월 28일 을묘.



〈그림 10〉 마등산 주변 지형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지형도 <언양>·<울산>(2013). 등고선은 표고 100m부터 40m 간격으로 표시. 경부고속도로와 1986년에 조성된 大谷湖는 그리지 않았다.

있다. 그러므로 마등오는 이전리, 또는 이전리와 은편리, 만화리 일부를 포함한 지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麻等烏임은 다시 『삼국유사』의 天龍寺 기사로 증명된다.

> "東都의 남산 남쪽에 봉우리가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세상에서 高位山이라 한다. 산의 남쪽[陽]에 절이 있는데 高寺라 하고 혹은 天龍寺라고도 한다. 『토론삼한집』에 말하기를 계림 땅 안에 客水 두 줄기와 逆水 한 줄기가 있는데 객

> 수와 역수의 두 근원이 하늘의 재앙을 누르지 못하면 天龍이 엎어져 무너지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였다. 항간에 전하기를 역수란 경주 남쪽의 馬等烏村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 이것이라 하며, 또한 이 물의 근원이 천룡사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44]

이 기사에서 객수와 역수는 무엇일까? 경주를 흐르는 가장 중심 되는 하천은 서천이다. 경주의 계곡 곳곳을 흐르는 하천들은 대부분 서천으로 모여든다. 동쪽에서 시작되는 북천, 동남쪽에서 시작되는 남천, 남쪽에서 시작되는 미역내[藿川, 麟川], 서쪽에서 시작되는 모량천은 모두 서천으로 합류하여 영일현(포항)을 거쳐 동해로 흘러 나간다. 그러므로 서천은 경주의 主水이지 客水가 아니다. 객수란 서천 외에 경주에 근원을 두고 다른 고을에 흘러들어가 그곳의 주된 하천 역할을 하며 바다로 흘러나가는 하천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경주에서 직접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대종천을 제외하면 그런 하천으로는 셋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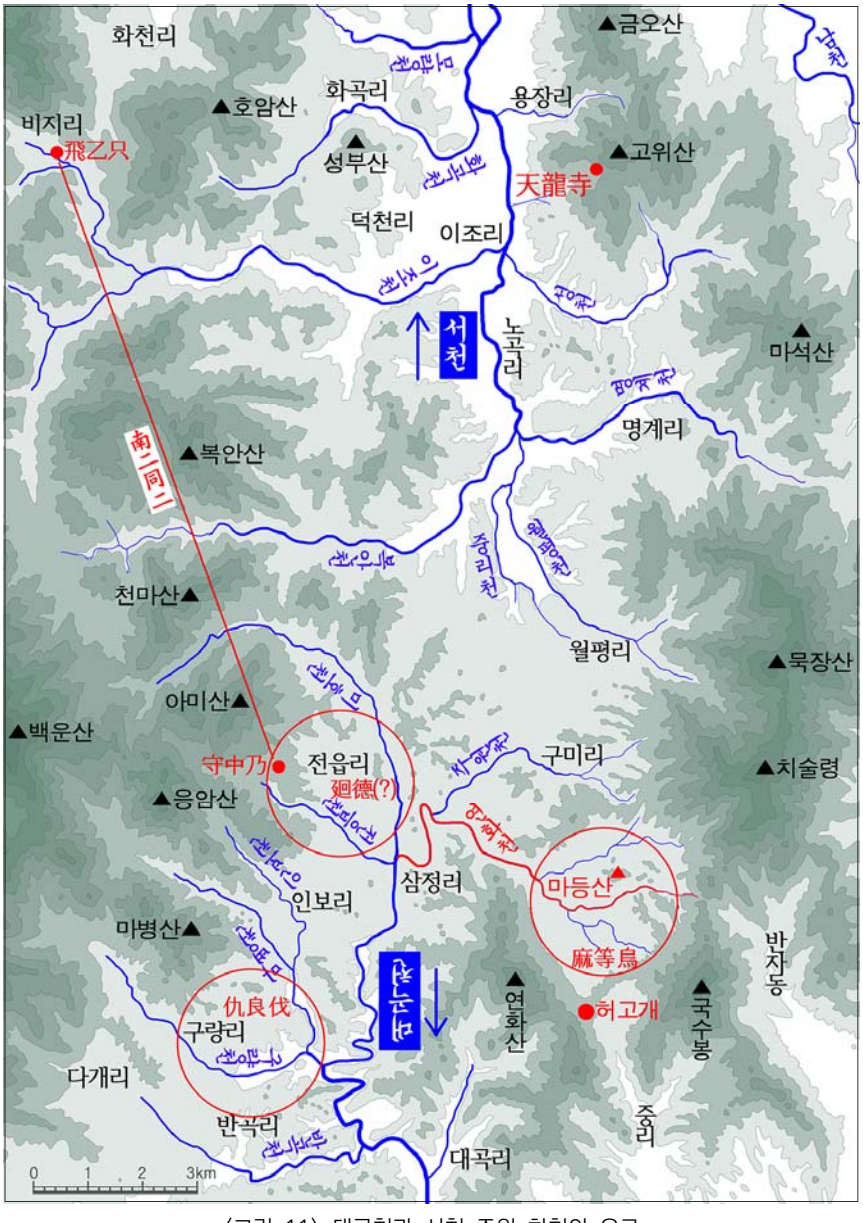
첫째는 예전에는 경주군 외남면 소야리였던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에서 발원하여 산내면을 거쳐 청도, 밀양을 지나다가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동창천으로서, 경주에서는 산내면 의곡리를 지나므로 의곡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는 외동읍 활성리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화강과 함께 울산만으로 흘러나가는 어련천이다. 셋째는 예전의 경주군 외남면, 지금의 울주군 두서면에 속해 있는 내와리의 백운산 기슭 탑골 미호천에서 시작하여 태화강을 거쳐 울산만으로 흘러 나가는 대곡천이다(<그림 1>).

세 하천 가운데 동창천은 경주보다는 청도의 하천이라 할 수 있고, 어련천도 경주보다는 울산의 하천이라 할 수 있으므로『토론삼한집』에서 이 둘을 객수로 보고, 남은 대곡천을 역수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을 보면 천마산과 치술령을 잇는 선의 북쪽을 흐르는 복안천, 중리천, 월평천, 명계천, 성천, 이조천, 화곡천, 모량천은 모두 남쪽, 동남쪽, 서남쪽에서부터 서천으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그와 반대로 천마산과 치술령을 잇는 선의 남쪽을 흐르는 미호천, 전읍천, 주원천, 인보천, 마병천, 구량천, 반곡천은 대체로 북쪽,

---

44)『삼국유사』권3, 塔像 天龍寺. "東都南山之南 有一峰屹起 俗云高位山 山之陽有寺 俚云高寺 或云天龍寺 討論三韓集云 雞林土內 有客水二條 逆水一條 其逆水客水二源 不鎭天災 則致天龍覆沒之災 俗傳云 逆水者 州之南 馬等烏村南流川是 又是水之源 致天龍寺".



〈그림 11〉 대곡천과 서천 주위 하천의 유로

* 하천명을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놓았고, 연화천은 붉게 표시했다.

■ 조선총독부, 1:50,000지형도, <毛良里>·<彦陽>·<朝陽>·<蔚山>(1927). 등고선간격 100m

북서쪽에서 흘러 내려와서 대곡천에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즉 서천에 합류하는 하천들은 대개 남쪽에서 흘러내려와 북쪽으로 흐르고, 대곡천에 합류하는 하천들은 북쪽에서 흘러내려와 남쪽으로 흐른다.

그런데 대곡천에 합류하는 하천 가운데, 마등산 남쪽 연화천의 흐름은 다른 하천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연화천은 궁극적으로는 남쪽으로 흐르지만 남쪽이 국수봉, 허고개, 연화산으로 막혀있으므로 다른 하천들처럼 곧바로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북서쪽으로 흘러 연화산 동북쪽 경사면 지대를 지나는 도중에 주원천과 합류한 뒤 곧 연화산 북쪽 기슭에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유로를 180도 변경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삼국유사』에서 마등오촌 남쪽을 흐르는 물이 거꾸로 흐르는 물, 逆水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이 물의 근원이 천룡사에 이른다(又是水之源致天龍寺)"라는 『삼국유사』의 말을 근거로, 마등오 남쪽 하천이 천룡사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등오를 고위산 기슭, 용장리로 추정하기도 했다.[45] 그런데 천룡사 남쪽을 흐르는 별내[星川]는 역수라고 할 만한 특이한 점이 없다.

그와 아울러 『동경잡기』의 기록을 보면 마등오는 천룡사 근처일 수가 없다. 『동경잡기』 各同에서는 영남의 여러 고을에서 年分書員이 관장하는 경계의 한계를 同이라 부른다 하고, 마등오에서 천룡사까지를 '府南3同'이라 했다.[46] 同은 조선시대의 田稅 책정과 연관된 단위 구역을 말한다. 조선에서는 과전법 이래로 군현마다 한 해 농사의 豊凶에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전세를 책정했고, 세종 때에는 貢法을 제정하면서 풍흉을 上上年부터 下下年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9등제를 시행하였지만 한 군현에 하나의 통일된 年分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하였다. 그러다가 지역마다 풍흉이 다른데 커다란 군현 단위로 연분을 정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내내 있어 1454년(단종 2)부터 한 군현의 연분을 읍내와 4면으로 나누어 달리 책정하였다.[47] 그러나 면 단위 面等第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세분화된 庫員等第, 字等制의 시행이 논의되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소지역단위 연분등제가 임시로 시행되

45) 末松保和, 앞의 1954 책, 259면; 三品彰英, 앞의 1975 책, 422~423면; 전덕재, 「신라 6부 명칭의 語義와 그 위치」, 『경주문화연구』 1,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1998, 17면.

46) 『東京雜記』 권2, 各同.

47) 『단종실록』 권12, 단종 2년 8월 28일 정미.

기도 하였다.[48] 그러나 해마다 가을에 年分書員이 연분을 審定할 때에 비리가 발생하기 쉽고, 번거로운 점도 많아 17세기 전반 인조 때부터는 해마다 번거로운 연분심정을 하지 않고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세를 거두는 永定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영정법이 전국적으로는 시행되지 못하여 경상도에서는 군현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同 단위의 연분심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749년(영조 25)에 편찬된 『鶴城誌』를 보면 예전에 울산부는 府2同, 東2同, 西3同, 南9同, 北3同 등 모두 19同으로 구역을 나누었다 하고,[49] 『동경잡기』에 수록된 경주의 경우에는 東5同, 西3同, 南3同, 北2同으로 나누고 각 同을 다시 同初, 同二, 同三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두 20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 20개 구역 중의 하나인 南三同의 관할 구역이 馬等烏에서 天龍寺까지였다. 그런데 마등오가 천룡사 근처라면 마등오부터 마등오 바로 근처의 천룡사까지를 하나의 同으로 설정했을 리가 만무하다. 하나의 同은 대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넓은 구역이다. 예컨대 『동경잡기』에서 南三同 바로 앞에 제시된 南二同二는 飛乙只[빌기]에서 守中乃까지인데 두 지점 사이는 직선거리로 12km에 달한다(<그림 11>).[50]

결국 『삼국유사』의 "또 이 물의 근원이 천룡사에 이른다"는 말은 마등오 남쪽을 흐르는 역수의 근원이 천룡사 근처에 있다는 뜻으로 잘못 읽기 쉽다. 그러나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자면, 연화천은 북쪽으로 흐르다가 정반대 남쪽으로 흐름을 바꾸는 逆水인데 그대로 계속 북쪽으로 흐르는 줄로 잘못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의 근원이 천룡사에 이른다고도 한다"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麻等烏란 무슨 뜻일까?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억지로라도 해석해 보기로 한다. 麻等山(馬登山)의 烏는 상고음에서 주요모음이 *a인 魚部의 글자로서 *ʔa로 재구되며, 그것은 비둘기 구(鳩), 참새 작(雀)처럼 까마귀를 울음소리를 음으로 하여 표시한 글자이다. 烏[*ʔa]에서 影母의 후두폐쇄음 ʔ는 묵음과 g의 중간에 해당하

48) 『성종실록』 권54, 성종 6년 4월 23일 신축; 권213, 성종 19년 2월 12일 병오; 권243, 성종 21년 8월 27일 정미; 권256, 성종 22년 8월 18일 임술; 권293, 성종 25년 8월 27일 계미.

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蔚山邑誌』(奎11699) 舊各同. 『鶴城誌』는 1894년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蔚山邑誌』라는 題名으로 다시 간행되었다.

50) '빌기'라 부르는 飛乙只는 지금의 경주시 내남면 飛只里를 말하고, 守中乃는 예전에는 경주 외남면에 있었으나 지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소속된 수정내 마을을 말한다(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220면; 앞의 1980책, 381면).

는 음소로서 묵음 또는 g로 실현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말에서는 거의 묵음으로 실현되었으나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우리말에 g 음소가 없어서 g 대신에 k로 실현된 것이다. 예컨대 충남 예산에 있었던 烏山縣이 孤山縣으로 바뀐 것은[51] 우리말에서 중국 한자음 *ʔā(烏)가 *kʷā(孤)로 치환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52] 따라서 烏[*ʔa]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ᄀ[邊]'를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麻等烏는 麻等山의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짐작해 본다.

Ⅶ. 동북촌 葛谷, 仍仇彌村, 勿伊村

1. 葛谷, 仍仇彌村

동북촌 葛谷은 현재 천북면 葛谷里에 지명이 그대로 남아 전한다.[53] 葛谷은 '치실'로 부르므로 葛을 '칡'의 뜻 표기로 볼 수 있지만, 闕谷이라고도 하므로 葛이 소리 표기일 수도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더 이상의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고려 초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의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현재의 갈곡리가 예전의 갈곡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영역의 대소는 같지 않더라도 중심지는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갈곡과 함께 동북촌에 소속된 勿伊村(물이촌), 仍舊彌村(잉구미촌)도 갈곡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주읍성의 동북쪽 구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仍仇彌村의 仍은 우리말 한자표기에서 芿과 함께 '넙'으로 읽는다. '넙다'는 '넓다'의 중세국어이다. 우리나라의 섬 이름 가운데 넓은 섬이라는 뜻의 이름 '넙섬'을 한자로 표기할 때에는 廣島, 芿島 또는 納島로 표기했다. 汝矣島의 옛 이름 仍火島도

51) 『삼국사기』 권36, 지리지3 熊州 任城郡 孤山縣.

52) 烏의 상고음 *qa는 漢代에 *ʔa로 변했다(潘悟雲, 앞의 2000 책, 187~188면. 鄭張尙芳, 앞의 2013 책, 338면). 影母가 고대국어에서 k로 나타난 예에 관해서는 정연식, 「경주 북부의 音汁伐과 士朴里에 남은 알타이어의 흔적」, 『대동문화연구』 10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238~240면 참조.

53)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277면.

넓은 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뜻의 '너벌섬(넙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54] 경주 외남면에 속해 있다가 현재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관할이 된 仁甫里는 본래 仍甫驛이 있었던 仍甫里로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은 '너부'였다.[55] '仍邑甫驛' 표기는 仍의 음이 'ㅂ'이 붙은 '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56]

그리고 '구미(仇彌)'는 원시알타이어의 *kumi에서 온 말로 속이 빈 곳, 안쪽으로 쑥 들어간 곳을 말한다. 구미는 고대만주퉁구스어에서 *kum-, 고대몽골어에서 *kömög, 고대일본어에서 *kuma였으며 중세일본어, 근대 일본어에서도 모두 구석진 곳, 숨겨진 곳을 뜻하는 kuma(く ま: 隈)로 남았다.[57] 한반도에서는 중세한국어에서 '구무' 또는 '굼'이었고, 현재는 '구멍'으로 남았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도 해변의 등고선이 안쪽으로 쑥 들어간 곳에 황토구미, 통구미, 사태구미라는 이름이 붙었다.

구미를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할 때에는 仇彌, 仇味, 丘尾, 龜尾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58] 결국 仍仇彌는 '넙구미'로 읽어야 한다. '넙구미'는 넓게 속이 텅 빈 곳, 넓은 골, 넓은 굴, 넓은 구멍을 뜻하는 말로서,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면 廣洞 또는 廣谷이 된다.

그런데 『호구총수』에서 경주 천북면의 16개 里 가운데 廣洞里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사실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지명총람』에는 聲池里에 廣谷驛이 있었다고 했다. 못 이름이기도 하고 마을이름이기도 한 聲池, 즉 소리지(所里池 · 所五里池)는 예전에 <경주신문>에서 취재한 바로는 동산 동북쪽을 넓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廣谷, 廣東[廣洞]으로 부르다가 후에 못이 생기면서 소리지[聲池]라 불렀는데, 현지에서는 마을 위쪽을 '너브골'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59] 너브골, 너부골은 廣洞, 廣谷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현재의 성지리는 예전 廣洞, 廣谷이 있던 聲池里가 서남쪽의 강정리와, 강정리 동남쪽의 중방리를 아우름으로써 확장된 법정리이며, 행

54) 정연식, 「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竹島]의 뜻」, 『역사학보』 241, 역사학회, 2019, 150면.

55) 한글학회, 앞의 1980 책, 380면;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50,000지형도, 〈彦陽〉(1927).

56) 『慶尙道續撰地理誌』 慶州道 慶州府 驛站 "仍邑甫驛 南距彦陽德泉驛二十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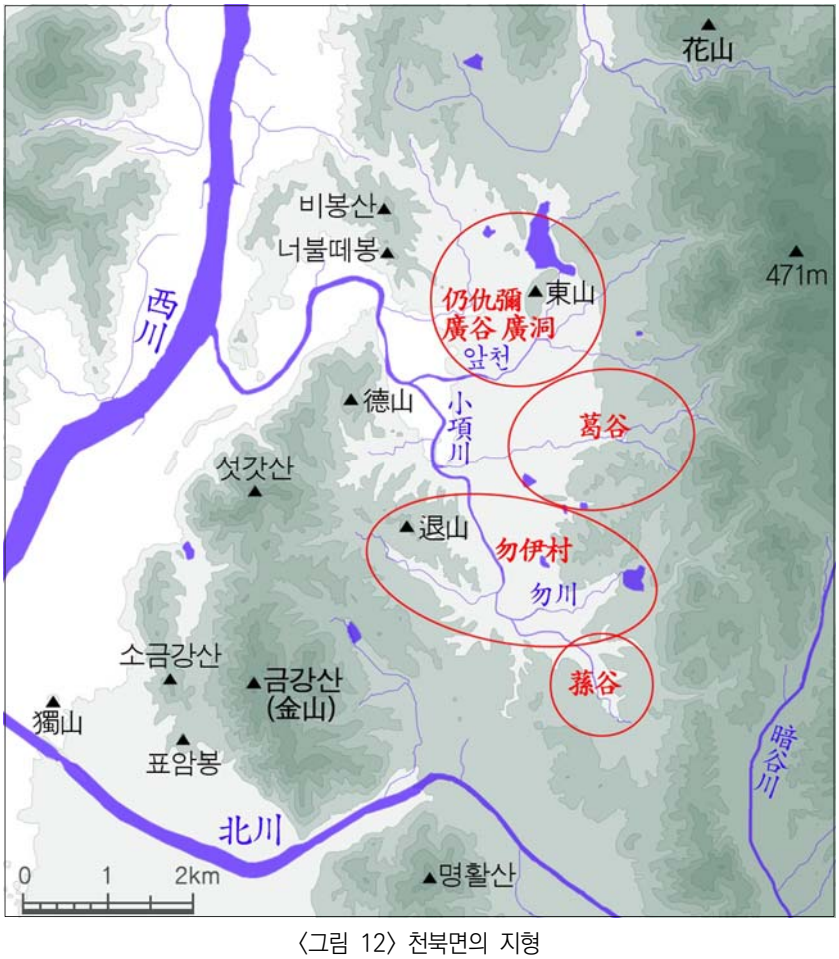
57) S. Starostin, A. Dybo, O. Mudrak, op. cit., 2003, p.738.

58)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8월 8일 갑술.

59) 〈경주신문〉 2007년 2월 26일자, 「'소리못'의 한자표기 성지(聲池)」. 소리지, 즉 所里堤는 『東京雜記』에서는 所里堤, 『輿地圖書』에서는 所五里堤로 표기했다.

정리로 말하자면 성지는 성지1리가 되었고, 강정과 중방은 성지2리가 되었다.[60]

그곳에 넙구미, 廣洞, 廣谷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신당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좁은 골짜기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넓은 평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계곡 막바지에 이르면 '손실'이라 부르는 蓀谷이 있다



〈그림 12〉 천북면의 지형

* 蓀谷은 勿伊村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온맵지형도, <경주> · <불국사>(2013). 등고선간격 40m

60) 越智唯七, 앞의 1917 책, 491면.

(<그림 12>). 경상도 지명에서 '실'은 봉화의 닭실[酉谷], 경주 외동읍 입실[入谷]이 그렇듯이 '골[谷]'을 가리킨다. 그리고 '솔다'는 좁다, 가늘다, 작다를 뜻하는 말이고, '손'은 '솔다'의 관형형으로 대개 孫, 蓀으로 쓴다. 그래서 강화도 손돌목의 손돌(孫乭)은 좁은 물길이라는 뜻의 '착량(窄梁)'이라 했다.[61] 창녕군 이방면의 좁은 골짜기에 있는 松谷里는 솔실, 손실로 부르고 松谷, 孫谷으로 썼다. 따라서 仍仇彌, 廣谷, 廣洞은 蓀谷과 대비되는 말이다. 행정구역의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므로 넙구미[仍仇彌]를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聲池里의 소리지와 그 동쪽 일대를 가리켰던 것으로 짐작된다.

2. 勿伊村

동북촌에 속한 勿伊村도 경주읍성의 동북쪽 구역의 葛谷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개 勿伊村을 현재의 勿川里로 지목했다.[62]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勿川里가 葛谷 근처에 있고, 勿伊村과 '勿' 자가 같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러한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인해 보기로 한다.

'勿伊'라는 이름은『삼국유사』이후로는『慶尙道續撰地理誌』(1469)에서 경주의 磁器所가 있는 마을 넷 가운데 하나인 勿伊里에 처음으로 보인다.[63] 그리고 '勿川'이라는 이름은『동경잡기』에서 末承內堤가 勿川에 있었다는 기록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64] 末承堤(末承池)는 현재 '멍승지'라는 이름으로 '무내'라는 마을에 있는데, 勿川은 무내의 한자표기이다. '겨우내'처럼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여 물내[勿川]가 '무내'가 된 것이다.

勿, 勿伊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勿川里의 범위를 확인하여 알아본다.『호구총수』에는 천북면 16개 리가 고성리, 지북리, 냉천리, 신당리, 동천리, 북군리, 물천리, 퇴산리, 동산동리, 광동리, 토점리, 갈곡리, 묵림리, 오야리, 모아리, 청령리의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나열 순서를 살펴보면 남서쪽 끝의 고성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 지북,

61)『龍飛御天歌』6:59(49章) "又入搾梁손돌…搾梁在今江華府南三十里許".

62) 末松保和, 앞의 1954 책, 260면; 三品彰英, 앞의 1975책, 260면.

63)『慶尙道續撰地理誌』慶州道 慶州府 陶器所·磁器所.

64)『東京雜記』권2, 堤堰.

냉천, 신당에 이르고, 다시 남쪽의 동천에서 북군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 물천, 퇴산, 동산동, 광동에 이르며, 또 다시 남쪽 토점에서 북으로 갈곡, 묵림을 거쳐 서쪽으로 오야, 모아, 청령으로 끝났다(<표 3>, <그림 13>). 그 가운데 고성리와 지북리는 현재 대체로 황성동과 용강리가 되었고, 냉천리는 신당리에 합속되었고, 동산동리는 현재 동산리가 되었고, 墨林里는 黑林을 거쳐 현재 화산리의 興林으로 바뀌었으며,[65] 광동리는 앞서 밝혔듯이 대체로 지금의 성지리에 포함되었다. 16개 리 가운데 남은 토점리와 퇴산리는 현재 이름이 남아 있지 않아 위치를 찾아야 한다.

우선 土店은 토기를 만들던 곳 이름이다. 예를 들면 경북 영양 일월면 가곡리의 질그릇점이 있던 곳을 土店谷, 점골이라 불렀고,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의 옹기점말을 토점리, 점말이라고 불렀다.[66]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물천리와 손곡동의 경계 구역에서, 신라의 토기 가마 유적이 대규모로 발견되었다.[67] 따라서 토점리는 대체로 손곡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3〉 천북면 里의 변천

1789년		1912년	1917년
남↓북	高城里	高城里	隍城里
	枝北里	龍江里	龍江里
		枝北里	
		新 里	
	冷泉里	神堂里	神堂里
	神堂里		
남↓북	東川里	東川里	東川里
	北軍里	北軍里	北軍里
	勿川里	勿川里	勿川里
	退山里	玉 洞	
		德山里	德山里
	東山洞里	東山里	東山里
	廣洞里	聲池里	聲池里
		江亭里	
		中坊里	
남↓북↓서	土店里	蓀谷里	蓀谷里
	葛谷里	葛谷里	葛谷里
		南阿里	
	墨林里	花山里	花山里
	吾也里	西坪里	吾也里
		吾也里	
	毛兒里	毛兒里	毛兒里
	靑令里	靑令里	靑令里

* 1789년은 『호구총수』, 1912년은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7년은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 里의 통합, 분리는 위의 자료에 따라 대강 나타냈다.

65)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281면.

6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6(경북편Ⅲ)』, 1979a, 126~127면;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465면.

67) 손곡동과 천북면에서 모두 83기의 토기 가마가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52기가 이곳에 집중되었다(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 한국마사회, 『경주 손곡동 · 물천리유적(Ⅲ)-경마장 예정부지(사적 430호) B지구』, 2003, 13쪽; 이상준, 「경주 손곡동 · 물천리 요적(窯蹟)을 통해 본 신라토기 소성(燒成) 기술」, 『문화재』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72~73면). 그로 인해서 이곳에 예정되었던 경마장 건설이 취소되었다.

한편 퇴산리는『호구총수』의 나열 순서로 보면 물천리와 동산동리 사이에 있다. 현 행정구역에서 물천리와 동산리 사이에는 동쪽의 갈곡리와 서쪽의 덕산리가 있는데, 갈곡리는 따로 있으므로 퇴산리는 지금의 갈곡리 서쪽의 덕산리이거나, 덕산리를 포괄한 구역이거나, 덕산리 인근의 구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退山村에 東山洞堤가 있었던 기록이『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 남아 있다.[68] 그러므로 동산리 일부가 예전에는 퇴산촌에 속해 있었으며, 퇴산리가 현재의 동산리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총독부의『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에는 천북면의 里가 22개로 늘어서 고성리, 용강리, 지북리, 신리, 신당리, 청령리, 모아리, 화산리, 동산리, 강정리, 성지리, 남아리, 갈곡리, 덕산리, 옥동, 물천리, 손곡리, 동천리, 오야리, 서평리, 중방리, 북군리의 순으로 열거되어 있다. 나열 순서는 대체로 고성리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 화산리까지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손곡리, 동천리까지 이르렀고 마지막으로 남은 오야리부터 북군리까지 4리를 무작위로 나열한 것이다(<그림 13>). 이 경우에는 동산리와 물천리 사이에 강정리, 성지리, 남아리, 갈곡리, 덕산리, 옥동 등 6개 동리가 있고 퇴산리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6개 동리 가운데 퇴산리에 해당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17년의『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 의하면 강정리는 지금의 성지리에 흡수되었고, 남아리는 갈곡리에 흡수되었다. 남은 것은 덕산리와 옥동이다. 그러므로 예전의 퇴산리는 대체로 덕산리와 옥동에 해당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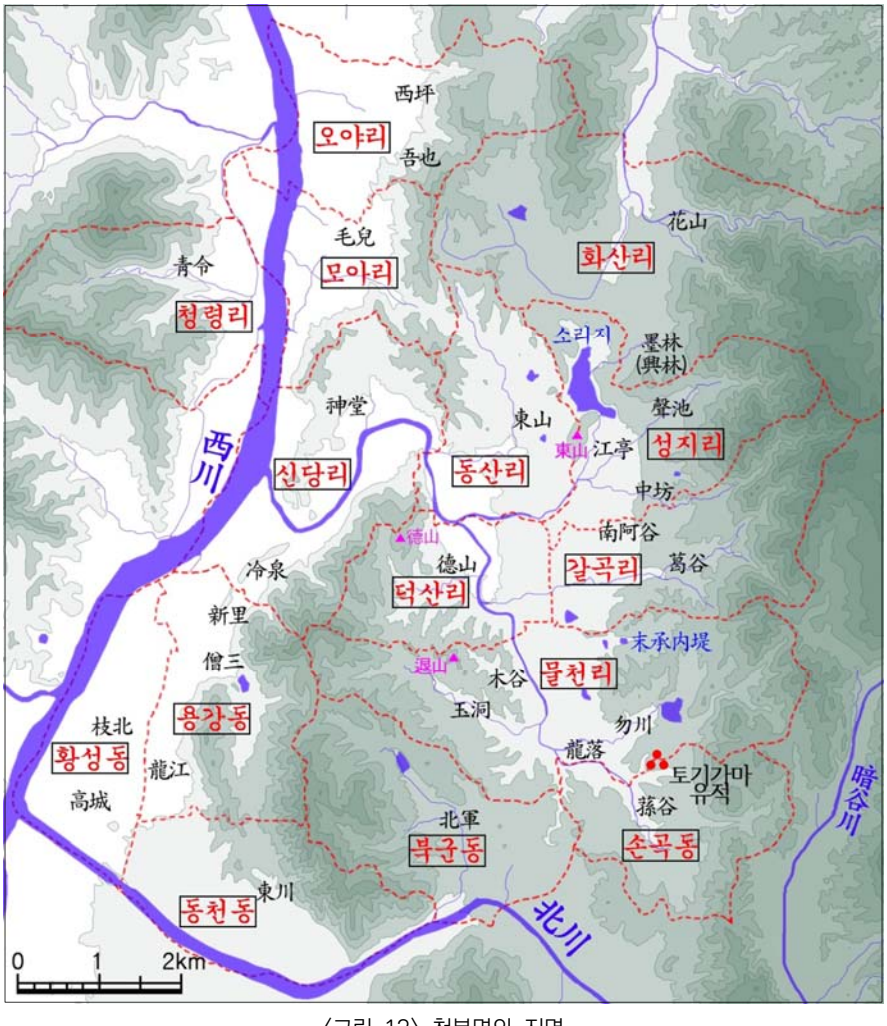
그리고 退山里에는 퇴산이 있을 것이다. 퇴산리는 대체로 옥동과 덕산리에 해당되는데 덕산리에는 덕산이 있으므로 퇴산은 옥동 쪽에 있었을 것이다. 옥골[玉洞] 근처에서 퇴산을 찾는다면 덕산에서 남남동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표고 140m의 산을 들 수 있다.

이제 德山과 退山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알아본다. 북천 이북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천동, 북군동, 용강동의 경계선에 표고 300m의 금강산이 있고 그 서쪽에 소금강산(177m)이 있다.[69] 소금강산의 북쪽 능선, 찬새미[冷泉] 남쪽에 금강산과 비슷한 높이의 섯갓산(271m)이 있고,[70] 그 동북쪽에는 표고 151m의 낮은 산이 있는데,

68)『慶尙道續撰地理誌』, 慶州府 堤堰.

69) 금강산은 일부 지도에 금학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는 산 이름을 잃었지만 덕산리에 있는 유일한 산이므로 德山으로 불렀을 것이다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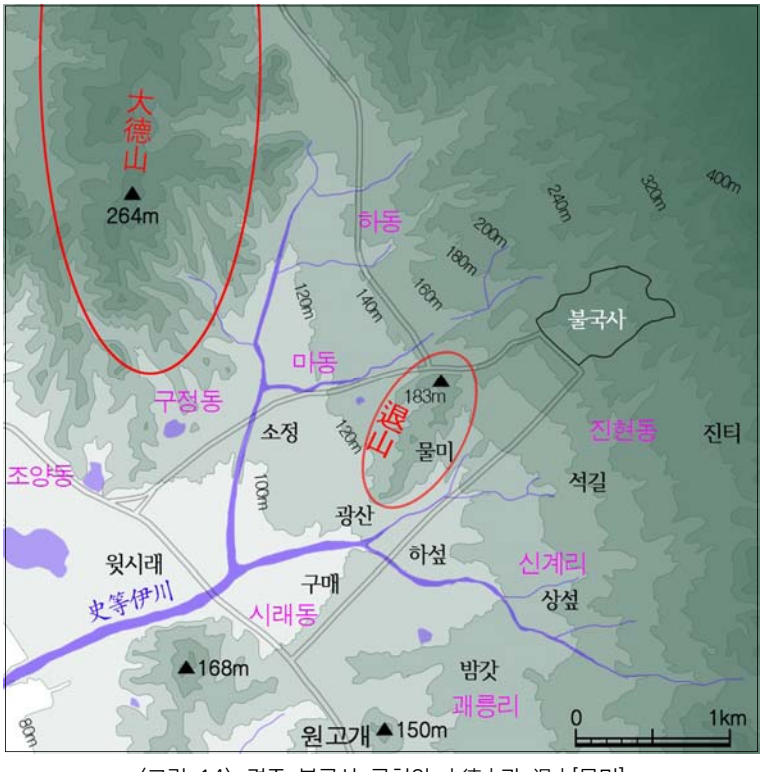
〈그림 13〉 천북면의 지명

* 청령리와 ○○동은 현재는 천북면 관할이 아님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온맵지형도, <경주>·<불국사>(2013). 등고선간격 40m

70) 섯갓산은 冷泉의 남쪽, 僧三의 북쪽에 있어 冷泉山, 僧三山으로도 부른다.

德山의 '德'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더하다, 덧붙이다'의 '덧'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많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에서 매창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덕재, 덧재'로 부르고 '德峴, 加峴'으로 표기하며, 1937년의 조선총독부 지도에도 '加峴'으로 표시되어 있다. 더하다, 덧붙이다의 '덧'이 '德' 또는 '加'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71]



〈그림 14〉 경주 불국사 근처의 大德山과 退山[물미]

■ 국토지리정보원, 1:25,000온맵지형도 <불국>(2013). 등고선간격은 200m까지 20m, 200m 이후 40m. 근래의 하동지(鰕洞池)는 표시하지 않았다.

71) 한글학회, 앞의 1979b 책, 67면; 朝鮮總督府, 1:50,000지형도, 〈醴泉〉(1937).

그러한 사례는 경주의 천군동과 하동의 경계에 걸쳐 있는 大德山에서도 볼 수 있다. 대덕산은 토함산과 만호봉의 커다란 산줄기 서쪽에 커다랗게 덧붙은 모양으로 있다(<그림 14>). 그리고 천북면에서는 금강산과 섯갓산을 잇는 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섯갓산의 동북쪽 기슭에 오른쪽으로 굽은 갈고리 모양으로 덕산이 덧붙어 있다(<그림 12>).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덕산이라 불렀을 것이다.

한편 退山은 툇마루, 툇간이 그렇듯이 온전하게 앞으로 뻗어 있지 않고 뒤로 물러서 들어간 작은 것을 '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退는 중세국어의 '므르다, 므ᄅᆞ다'를 표기한 글자로서 안동 예안면 태곡리의 退山이나 영주 장수면 화기리의 退山도 우리말로는 물뫼, 물미라 불렀다.[72] 불국사 입구의 진현동과 마동에 걸쳐 있는 표고 184m의 낮은 산도 退山이라 하고, 그 아래 기슭의 마을을 '물미'라 불렀다(<그림 14>). 앞에서 찾은 양북면 안동리의 동매산 주변의 東山 마을이 그렇듯이, 산이름이며 동시에 마을이름인 물미의 한자표기를 退山으로 한 것이다. 천북리의 퇴산도 마찬가지이다. 산의 능선도 안쪽으로 물러나 있다(<그림 12>).

결국 신당리 쪽에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북동쪽으로 불쑥 튀어 나와 덧붙은 산이 덕산이고, 더 들어가면 보이는, 동쪽으로 낮게 튀어나온 산이 퇴산이다.

한편 천북면 골짜기의 하천을 살펴보면 蓀谷(손실)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덕산과 너불떼봉 사이를 지나 신당리에서 서천에 합류하는 하천을 소미기내[小項川]라 하고, 신당리 쪽에서는 신당천이라고도 부른다.[73] 그리고 소리못[聲池], 중방, 강정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리다가 덕산리와 동산리 경계선에서 소미기내에 합류하는 하천을 '앞천'이라 부르고, 앞천 남쪽으로 물천리 동쪽의 산비탈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려 소미기내에 합류하는 하천 또는 하천 주변의 마을을 무내, 물천(勿川)이라 부른다.

무내, 勿川이라는 이름도 같은 유래를 갖고 있다. 신당천이라고도 하는 소미기내[小項川]을 따라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먼저 만나게 되는 앞에 있는 하천이 앞천이고, 뒤쪽으로 물러 들어간 곳에 흐르는 하천이 무내, 勿川이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 退溪洞의 공지천은 동북쪽으로 물러난 부분을 따로 무리개, 무린개, 退溪라 하는데,[74] '무리개'의 뜻 표기가 退溪라면, 소리 표기는 勿伊溪가 될 것이다.

---

72) 한글학회, 앞의 1978b 책, 449면; 앞의 1979a 책, 327면.

73) 국립지리원, 1:5,000지형도 〈불국사041 · 051 · 052〉, 1983.

勿伊村이 退山에서 온 이름인지, 勿川에서 온 이름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退山, 勿川을 아우른 지명이 아닐까 한다.

이제까지 동북촌 마을들의 위치를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仍仇彌村, 勿伊村, 葛谷은 대체로 지금의 천북면 동산리 · 성지리, 물천리, 갈곡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한 <그림 12>를 보면 신당리 쪽에서 금강산 동쪽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마주치는 넓게 열려진 평지에 넙구미촌[仍仇彌村]이 있고, 동쪽 경사면 기슭으로 葛谷이 있으며, 안으로 더 들어가 그 뒤쪽으로 물러선 곳에 물이촌(勿伊村)이 있다. 그리고 막바지까지 깊숙이 들어가 마주치는 좁은 곳에 『삼국유사』에 언급되지 않은 손실[蓀谷]이 있는데, 손실은 물이촌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그림 12>의 천북면 지형에서 동산리 · 성지리의 넓은 넙구미촌부터 좁은 손곡동의 손실에 이르기까지 쑥 패어 들어가 마치 금강산의 동북쪽 기슭에 커다란 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金山 加利村의 金山은 표고 300m 금강산의 옛 이름이고, 加利[*kari]는 古尸寺(岬寺)의 古尸[*kari], 岬[*karp]이나 穴口郡의 옛이름 甲比古次의 甲比[*karpi]와 함께 모두 굴[穴]을 지칭한다.[75] 그러므로 금강산 기슭의 굴마을이라는 뜻의 金山 加利村은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곳은 낮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 외부의 적들에게 잘 노출되지 않고 겨울의 차가운 북서풍을 막을 수 있어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들이 초기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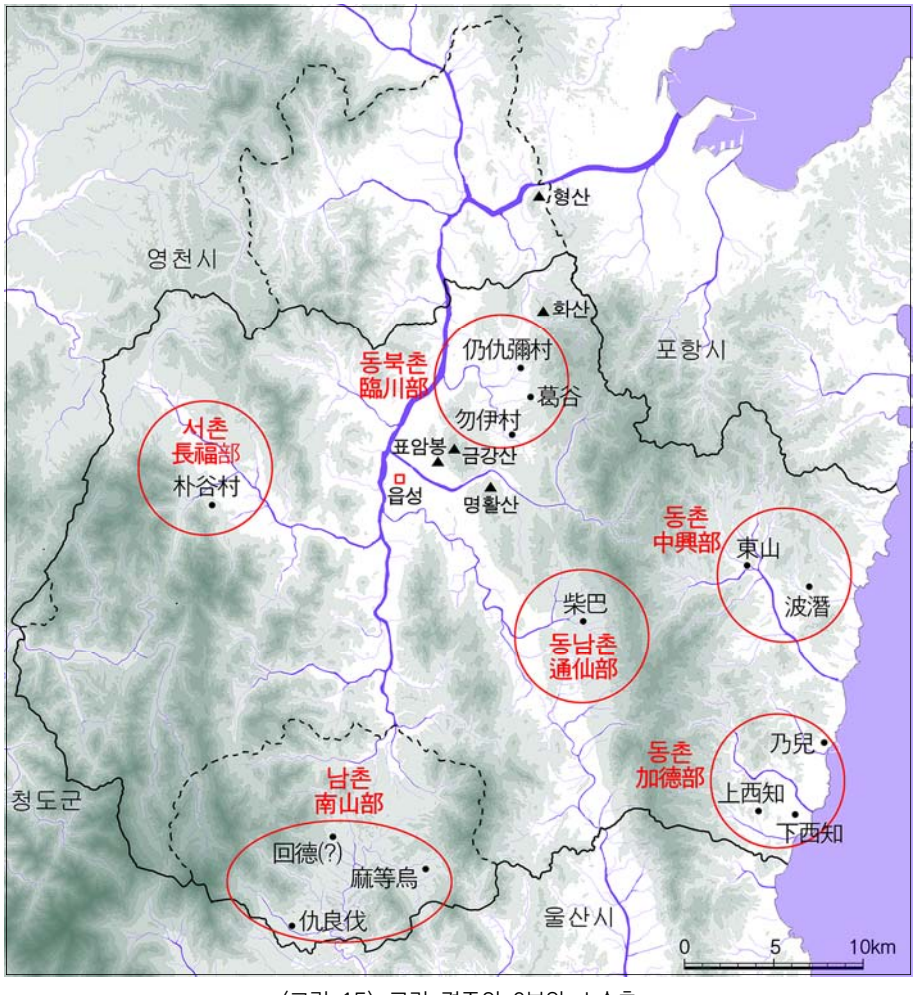
Ⅷ. 맺음말

이제까지 고려 경주 6부의 위치 추정 근거가 된 15개 마을 가운데 13개 마을의 위치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간결하게 <그림 15>의 지도로 제시했다.

---

7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1967, 477쪽; 김영기, 『춘천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1993, 152쪽. 『慶尙道續撰地理誌』에는 勿伊里에 磁器所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소가 손곡동, 물천리에 있었던 토기가마의 후신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75) 『삼국유사』 권4, 義解 圓光西學;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 高句麗 漢山州. [ ] 안의 음은 漢代의 후기상고음을 삼국시대 고대국어로 재현한 것이다. 甲 · 岬의 후기상고음 *krap은 음운도치를 통해 고대국어 *karp의 표현에 사용되었고, 굴을 뜻하는 *kari, *karpi는 *kar, *karp의 외파를 표현한 것이다. 加利村의 자세한 분석은 훗날로 미룬다.



〈그림 15〉 고려 경주의 6부와 소속촌

* 경주의 경계 설정은 <그림 1>과 같다. 점선은 현재의 경주시 경계이다.

■ 국토지리정보원, 1:50,000은맵지형도, <화북 · 기계 · 포항 · 대보 · 영천 · 경주 · 불국사 · 감포 · 동곡 · 언양 · 울산>(2013). 등고선간격 100m

13개 마을 가운데 가덕부의 下西知, 乃兒와 남산부의 仇良伐, 장복부의 朴谷村, 임천부의 葛谷의 위치는 이미 밝혀진 지 오래이다. 그리고 가덕부의 上西知, 통선부의 柴巴, 임천부의 勿伊村은 일찍부터 어렴풋이 위치를 짐작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廻德의 위치는 지금의 울주군 錢邑里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추정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仍仇彌村(잉구미촌)은 '넙구미촌'으로 읽으며 천북면 성지리, 동산리 일대에 해당됨을 새로이 밝혔다. 남산부의 麻等烏는 과거에 천룡사 근처로 추정했으나 사실은 훨씬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의, 치술령 서쪽 기슭에 있는 마등산과 그 주변의 이전리, 은편리, 만화리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결과들이 고려 경주 6부의 위치에 관한 예전의 추정과 크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中興部의 경우에는 다르다. 중흥부에 속한 東村의 波潛, 東山, 彼上은 전혀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다만 과거에 가장 강력했던 梁部의 후신이고, 部 이름에 '中' 자가 있으므로 東村에 속해 있는데도 지금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경주 시내 쪽으로 추측해 왔다. 그러나 波潛과 東山은 지금의 감포읍과 양북면에 해당되는 곳이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고려 초 경주의 6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당시 경주가 6부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 부도 있었는데 6부만이 거론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그렇다면 고려 6부 15촌을 근거로 신라 6부를 찾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고려 6부와 신라 6부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은 모량부의 후신인 장복부의 朴谷村 하나뿐이다. 신라 습비부와 고려 임천부, 신라 한기부와 고려 가덕부도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라 본피부의 후신인 고려 통선부의 柴巴는 지금의 외동읍 신계리에 해당되는데 괘릉 근처에 賓子村이 있었고, 신계리도 괘릉 근처이므로 그곳이 본피부의 본거지였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렇다면 모량부-장복부 외에도 본피부-통선부도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賓子'는 '분리된 듯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의 지명으로, 괘릉 근처와 외동읍 석계리 근처 두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뿐이다.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지산 돌기촌'으로 읽었을 本彼部의 '觜山 珍支村'은 치술령 기슭의 선돌이 있는 마을을 뜻하는 '부엉산 돌마을'의 한자 표기로서, 그곳은 외동읍 석계리를 가리킨다.[76]

그리고 촌장이 처음 강림한 산의 위치를 6촌, 6부의 위치와 연관시키는 것도 단념해야 한다. 각 촌장이 강림한 산이 오히려 다른 촌에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당 촌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경우도 보이기 때문이다. 모량부 시조가 강림한 伊山의

76) 정연식, 「경주 부엉산 기슭의 돌마을, 자산(觜山) 돌기촌[珍支村]」, 『한국사연구』 190, 한국사연구회, 2020.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나머지 다섯 산이 모두 북쪽으로 안강에서 경주 중심부 가까이까지 배치된 것으로 보아 신라를 세운 집단이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 집단이라는 사실이 촌장강림설화에 흔적으로 남은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일연이 『삼국유사』를 쓸 때에 참고한 기록에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삼국유사』 편집, 편찬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연이 자신의 잘못된 추측을 『삼국유사』에 그대로 담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신라 초에서 고려 초에 이르는 동안 경주의 행정구역 편성에 엄청난 변화와 비약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고려 초 경주 6부와 소속 촌에 관한 기록은, 신라의 6부, 6촌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둘 따름이다.

투고일: 2021.02.03 심사일: 2021.02.28 게재확정일: 2021.03.12

참고문헌

김무림,『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김영기,『춘천의 지명유래』, 춘천문화원, 1995
김재식 · 김기문,『경주풍물지리지』, 보우문화재단, 1991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 한국마사회,『경주 손곡동 · 물천리유적(Ⅲ)-경마장 예정부지(사적 430호) B지구』, 2003
魏國峰,『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태학사, 2017
전덕재,『한국고대사회의 왕경인과 지방민』, 태학사, 2002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 2(강원편) · 5 · 6 · 7 · 8(경북편) · 9(경남편Ⅱ), 1967, 1978~1980

末松保和,『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潘悟雲,『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三品彰英, 村上四男 編,『三國遺事 考證』 上, 東京: 塙書房, 1975
邵榮芬,『切韻硏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王力,『漢語語音史(王力文集10)』,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7
越智唯七,『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中央市場, 1917
李榮,『切韻音系』, 臺北: 鼎文書局, 1973
伊藤智ゆき,『朝鮮漢字音硏究』, 東京: 汲古書院, 2007
鄭張尙芳,『上古音系(第2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3
河野六郎,「朝鮮漢字音の硏究」,『河野六郎著作集 2』, 東京: 平凡社, 1979

Karlgren, Bernhard,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7
Pulleyblank, Edwin G.,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1991
Pulleyblank, Edwin G.,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Starostin, S., Dybo, A., Mudrak, O.,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 Leiden · Boston: Brill, 2003
박성현,「신라 왕경 6부의 경계에 대한 연구」,『대구사학』 134, 대구사학회, 2019
이기봉,「신라의 건국 전후 6촌과 그 전통에 대한 지리적 검토」,『문화역사지리』 15-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3

이상준,「경주 손곡동 · 물천리 요적(窯蹟)을 통해 본 신라토기 소성(燒成) 기술」,『문화재』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덕재,「신라 6부 명칭의 語義와 그 위치」,『경주문화연구』1,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1998
정연식,「경주 북부의 音汁伐과 土朴里에 남은 알타이어의 흔적」,『대동문화연구』10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_____,「울릉도, 독도의 옛 이름 대섬[竹島], 솔섬[竹島]의 뜻」,『역사학보』241, 역사학회, 2019
_____,「'독섬[獨島]'의 뜻과 유래」,『영토해양연구』17, 동북아역사재단, 2019
_____,「가개섬 鬱陵島의 여러 별칭과 于山島의 실체」,『대동문화연구』107,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_____,「경주 부엉산 기슭의 돌마을, 자산(觜山) 돌기촌[珍支村]」,『한국사연구』190, 한국사연구회, 2020

국토지리정보원 온라인 지도 통합지도검색(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일본 国立国會図書館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https://dl.ndl.go.jp/info:ndljp/pid/902246)
<경주신문> 2007년 2월 26일

The Locations of the Villages at the Six Districts in Gyeongju of Goryeo and the Six Districts of Silla

Chung, Yeon-sik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find the locations of the six villages (六村) and the six districts(六部) of Silla in various ways for a long time. Some tried to find them by way of searching 15 villages at the six districts in Gyeongju of Goryeo. Most districts of Goryeo having one or more villages of which location was certain could be found easily. But Jungheung-bu(中興部) was not, so researchers thought it might lie to the center of Gyeongju, for it was the predecessor of Ryang-bu(梁部) which was the strongest political group of Silla. Its location was still in doubt though.

Referring to old maps and surveys of old place names and analyzing the phoneme of the Chinese characters used for the name of 15 villages, I searched 13 villages. Finally, I found that the locations of districts of Goryeo and Silla did not coincide except Jangbok-bu(長福部) of Goryeo and Moryang-bu(牟梁部) of Silla. Especially, the villages of Jungheung-bu did not lie to the center of Gyeongju but to the east side of it. I suggest we should give up finding the locations of the six villages and six districts of Silla by searching the six districts in Gyeongju of Goryeo.

Key Words : Six Villages of Silla, Six Districts of Silla, Six Districts in Gyeongju of Goryeo, Old Korean, Altaic Languages